

## 지난주일(6월26일) 설교 발췌

제목: 하나님 나라의 미래 지향성 (눅 9:57~62)

예수의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무엇인가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나요? 쓰나미나 대지진은 일단 눈에 보이더라도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전파하라는 말인가요? 대다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러거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거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 앞에서 당혹스러워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도하라는 말씀이라거나, 또는 교회에 충성하라는 말씀 정도로 받아들입니다. 나름으로 열심히 충성 봉사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시들해지기도 합니다.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멀어지고, 조직으로서의 교회와 직책만 남습니다. 저와 같은 전업 목사도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순전히 목사라는 직책과 교회 부흥이라는 구체적 성과에만 목을 맵니다. 직책과 목회 성과도 필요하나 이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줄어드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아버지 장례까지 포기하고 가족과의 작별 인사도 사소하게 여길 정도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지난 신앙의 여정에서 그런 갈망을 경험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배타적 능력과 그 승리와 선하심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악한 세력이 더 기승을 부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무기력하듯이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의심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악한 자들이 심판받지 않고, 선한 사람들이 고난을 겪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신 존재라고 한다면 전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어린이들과 부녀자들이 당하는 참상을 그냥 보고 계실 수는 없습니다. 선천성 장애를 지닌 채 태어나는 아이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이런 일을 일일이 거론하면 도대체 하나님이 선하신 거 맞나, 하나님이 전능하신 거 맞나, 하는 의심이 듭니다. 그 사실을 성경 기자들도 다 압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고, 신약의 사람들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당한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가 실현될 그 미래의 세상을 가리켜서 유대인들은 새로운 세상(new aeon)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새로운 세상이 오면 어두움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악이 완전히 척결됩니다. 그런 세상을 이룰 이가 바로 메시아이며, 인자(人子)입니다. 이런 점에서 유대는 묵시적 메시아 공동체입니다.

## 서울샘터 교회주보

시작일 2008년 12월7일

2022년 7월3일  
성령강림 후 넷째 주일  
세계 교회력 「다」해 32주

✚ **오늘의 말씀**-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행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눅 10:20)



개망초, 정 목사 주택 급경사진 돌 틈 사이에 뿌리를 내린 채 외줄 타기 서커스 곡예사처럼 아슬아슬한 몸짓을 구현하고 있다. 저런 청초한 꽃에 개망초(亡草)라는 험한 이름을 붙였다니 ... (6월 하순)

예배 장소: 서울 동직구 여의대방로 53(대방동) 여성플라자 4층 아트컬리지5  
주일 공동예배: 4:00~5:00 / 간식 및 친교: 5:00~5:20 / 교육모임: 5:20~6:20  
목사: 정용섭(010-8577-1227, 053-856-1227), 박재진, 이춘우, 김동호  
홈페이지: <http://dabia.net/xe/churchs>

# 주 일 공 동 예 배 순 서

## 개 회 예 전

### 예배의 부름 ... 목사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시 50:14,15) 오늘 우리는 시편 기자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야말로 우리의 마땅한 도리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 \*찬송 30장 (전능하고 놀라우신) 1, 2절 ... 다 함께

### \*공동기도 ... 다 함께

권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현재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한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사람에게 의해서 제한받지 않으시고, 만물을 초월하여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가 경배와 찬양을 바쳐야만 할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기쁨과 평화의 영으로 충만해집니다. 그 기쁨과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가르치시고, 그 하나님을 향한 참된 순종이 무엇인지 자신의 삶 전체로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거룩찬송 「함께 부르는 떼제 찬양」 5장 (찬미하여라) 2회 ... 다 함께

## [알리는 말씀]

- 2022년의 절반이 끝나고 이제 남은 절반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샘터교회는 예배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 앞으로 더욱 예배에 힘써 집중해야겠습니다.
- 서울샘터교회는 매달 일정액을 새물결플러스에 후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 새물결플러스에서 보내온 많은 책들을 나누어 갖도록 하겠습니다.
- 7월 셋째 주 예배 후에는 부목사님들과 운영진의 식사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지난 6월 4일 대구에서 결혼한 박상민, 김지혜 부부가 오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 지난주일(6월26일) 헌금: 170,000원(주일 120,000원/ 통장 50,000원)  
/ 교회 온라인 통장: 카카오뱅크 3333-14-2466417 박수진

### \* 7월 예배준비

날짜	예배실	예배 인도	성경 봉독	헌금/안내	예배준비
7월3일	4층 아트컬리지5	이춘우	박수진	이기령 양혜선 오미영	오미영 이유선
7월10일	4층 아트컬리지5	정용섭	김기범	이기령 양혜선 오미영	최선아 박정덕

### \* 2022년 6월 재정보고

수 입			지 출	
주일헌금	2주	245,000	강사비	1,500,000
	3주	130,000	대관비	316,800
	4주	120,000	주보비	40,000
			구제비(채움누리학교)	50,000
통장헌금		920,000	선교비(뉴스앤조이, 새물결플러스)	100,000
선교헌금		100,000	간식비	35,000
이자		1,253	교회집기 보관비	70,000
			교회집기 물품비	32,900
			특강비(강사비, 간식비)	259,200
			회식비	272,000
			축의금	100,000
수입계		1,516,253	지출계	2,775,900
*수입 - 지출		-1,259,647	전월이월액	19,059,355
			현 잔액	17,799,708

## 봉 헌 과 친 교 예 전

신앙고백 사도신경 ... 다 함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헌금 30장 (전능하고 놀라우신) 3절 ... 다 함께

중보기도 ... 목사

주기도 ... 다 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알림 ... 목사

## 파 송 예 전

\*마침찬송 30장 (전능하고 놀라우신) 4절 ... 다 함께

\*위탁의 말씀 ... 목사

이제 성령강림 후 넷째 주일의 공동예배가 끝났으니 각자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생명의 비밀인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니 세상살이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축복기도 ... 목사

\*사죄기도 ... 다 함께

목사: 자비와 긍휼하심이 끝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러움으로 머리를 들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거스를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회중: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목사: 주님, 우리는 다른 이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만족감에 떨어지거나, 우리의 작은 능력에 감탄하면서 자신을 확대하는 일에 집착하곤 했습니다.

회중: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목사: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부지불식 간에 쏟아낸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거나 실족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아멘!

\*침묵기도 ...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 다 함께

\*사죄선포

목사: 이제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근거해서, 그리고 2천 년 교회의 예배 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뢴 모든 죄는 용서받았으니 기뻐하시고, 이웃의 잘못도 기꺼이 용서하십시오.

함께: 아멘!

\*영광찬송 「국악찬송」 6장 (영광 누리소서 3) ... 다 함께



\*평화인사 ... 다 함께

목사: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회중: 또한 목사님과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찬송 464장 (믿음의 새 빛을) ... 다 함께

찬송 「우리 가락」 90장 (이 세상 어딜 가든지) 2회 ... 다 함께

송준용

송준용

이 세상 어딜가든 지 어디서무얼하든 지  
주와함께 항상동행하면  
능력의주께서너를 사랑의주께서너를  
인도하며 축복하시리  
오 - 능력의주여  
오 - 사랑의주 - - 여  
이 세상 어딜가든 지 어디서무얼하든 지  
주와함께 항상동행하리

## 말씀예전

설교전기도 ... 다 함께

하나님은 태초에 모든 존재의 근원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읽히고 선포됩니다. 우리의 작은 경험과 생각에 갇혀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째말씀 열왕기하 5:1~14 ... 박수진 집사

성시교독 시편 30:1~12 (새로운 예배 시편 번역) ... 다 함께

우리주님 나를지켜 온전하게 하시기에 원수들이 나를보고 조롱하지 못한다네  
-우리주께 매달리며 구하소서 기도하자 병들었던 이내몸을 주님고쳐 주셨다네  
주님께서 스올에서 이몸끌어 올리시고 나를살려 무덤으로 가지않게 하셨다네  
-주를믿는 성도들이 찬양노래 부르거라 기록하신 이름으로 감사기도 바치어라  
주님진노 잠깐이요 주님은총 영원하니 저녁에는 울었어도 아침에는 웃으리라  
-형통하게 지낼때는 의기양양 자랑하고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으리라 하였지만  
태산보다 든든하게 나를지켜 주신주님 그분얼굴 가리우자 두려움에 빠졌다네  
-주님제가 탄식기도 간절하게 올립니다 이몸죽어 무덤가면 어찌영광 돌리오며  
한줄흠이 어찌주를 찬양할수 있으리까 죽은몸이 주의진리 어찌전파 하리이까  
-저의탄식 들으시고 자비로움 베푸소서 주님이여 지키소서 저의도움 돼주소서  
나의주는 슬픔바꿔 춤이되게 하시오며 나의베옷 벗기시고 색동옷을 입히시네  
-내영혼이 끊임없이 주를찬양 하오리니 내생명이 끝나도록 주께감사 하리이다

둘째말씀 갈라디아서 6:7~16 ... 박수진 집사

\*셋째말씀 누가복음 10:1~11, 16~20 ... 박수진 집사

\*응답찬송 새로운 예배찬송 492장 (아멘) ... 다 함께

A - men, a - men, a - - - men.  
아 - 멘 아 - 멘 아 - - - 멘

설교 하늘에 기록된 이름 ... 이춘우 목사

설교후 기도 ... 설교자

찬송 483장 (구름 같은 이 세상) 1, 3절 ... 다 함께